

최순우 선생의 회화사 연구

이 원 북 *

- I. 머리말
- II. 우리 옛 그림 연구의 雙璧 - 20세기 강단의 이동주와 박물관의 최순우
- III. 특별전 개최 - 국내외 특별전시 총괄과 대규모 회화 기획전
- IV. 혜곡의 회화사 연구 - 논고와 에세이
- V. 현대미술에 기여 - 평론, 현대 화단과 소통
- VI. 맺음말 - 한국회화의 위상과 특징

I. 머리말

蔡堂 金載元(1909-1990) · 三佛 金元龍(1922-1993) · 蕉雨 黃壽永(1918-2011)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4대 관장을 역임한 兮谷 崔淳雨(본명 崔熙淳, 1916-1984)는 문화예술 행정가로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이다. 미술사에 있어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사후 6년 뒤인 1990년 미술사학회에서 우리 미술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거론되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발표되었다.¹⁾ 1945년 光復과 더불어 국립박물관이 한국인의 손으로 되돌아온 후 25년 동안 초대관장 김재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두 번째로 긴 14년 동안 관장재임 중 최후를 맞은 명실상부한 博物館人이다. 1943년 개성부립박물관에 입사한 이래 국립박물관 근무경력이 40년을 넘으니 이는 앞으로도 좀처럼 이 기록을 깨기 힘든 전무후무한 일이라 하겠다. 樹墨 秦弘燮(1918-2010) · 황수영과 함께 ‘開城三傑’로 지칭되는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와 박물관의 큰 어른이다.²⁾

*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1) 洪善杓, 『韓國繪畫史 연구 30年』, 『美術史學研究』 188 (한국미술사학회, 1990), 『韓國繪畫史 연구 80年』, 『朝鮮時代繪畫史論』(文藝出版社, 1999), pp.16-50 : 김명숙, 『최순우의 실증주의적 한국미술사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김정아, 『최순우의 ‘한국미’ 서술에 나타난 어휘 분석 : - 메타비평의 시각에 입각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2) 이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으니 혜곡을 빼고 湖林博物館을 세운 尹章燮(1922-2016)을 포함해 ‘개성5걸’

그는 개성 자남산 서남쪽 지파리 해남골에서 태어났다. 꽃을 사랑하고 동물에 남 다른 애정이 짙은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인 혜곡은 文學에도 일찍부터 재질을 드러냈으니 그의 文名은 弱冠 이전 일간지에 발표된 詩로도 확인된다.³⁾ 1934년 ‘우리나라 미술사’의 아버지 又玄 高裕燮(1905-1944)과의 遭遇가 이루어진다. 이를 계기로 국립박물관 한 곳에서 세월의 흐름도 잊은 채 평생을 우리 문화재 속에서 문화재와 함께, 이를 통해 아름다움의 본질과 특징을 찾고 살피는 ‘한국미의 순례자’로 初志一貫, 평생과업으로 매진했다.

그의 역할은 박물관, 미술사와 고고학 영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다. 20세기 후반 미술계뿐만 아닌 감칠맛 나는 아름다운 수필과 미술평론 등 여러 예술분야에서 學藝를 아우르며 문화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진정한 인문학자로 문화계인사이다. 학자들과 교류 및 학문과 예술분야에 걸친 적지 아니한 선후배들과 만남, 그리고 평생의 삶 전체를 통해 미술사의 존재이유인 삶의 예술화(遊於藝)와, 우리 전통문화의 국외 홍보, 미술 나아가 문화발전에 끼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公務로 바쁜 와중에도 다방면에 걸쳐 발표한 적지 아니한 글은 전통회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도자와 목칠공예, 현대회화, 건축이 이르기까지 미술사 모든 영역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이 빚은 결과로 보기엔 광대하며 지대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넓은 아량과 慧眼 그리고 멈춤과 그침이 없는 지속된 고구를 일상화 한 自彊不息으로 自誠一家 결과라 하겠다. 글은 논문형식을 갖춘 논고를 비롯해 斷想으로 隨筆로 발표된 글들이 많다. 단 5매에 불과한 千字 에세이지만 때로는 한 편의 논문에 필적한다. 따뜻하며 예리한 시선으로 조형예술에 대한 철저한 관찰 및 감상을 바탕으로 한 오랜 研鑽과 깊은 穿鑿의 결과물이기에 때문이다. 이는 타고난 높은 眼目과 審美眼의 소유자이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斗酒不辭의 대단한 酒量이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는 점은 驚異롭다. 조용한 성품에 아끼는 후배 사랑 또한 각별하여 많은 친구와 후배가 따랐으니 이들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니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했다.

II. 우리 옛 그림 연구의 雙璧 - 20세기 강단의 이동주와 박물관의 최순우

한국회화사 연구를 살피면 경성제대에서 美學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20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

로 칭했다.

3) 이충렬,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김영사, 2012), 이 評傳은 최순우 일생과 업적을 복원하고 있으니 ‘한국의 미를 세계 속에 꽃피운 최순우의 삶과 우리 국보 이야기’란 부제와, 꼼꼼한 연보에선 송도고보에서 문예반 활동과 15세에 동아일보에 ‘밤’이란 동시를, 17세 때 같은 신문에 ‘버들강아지’란 시를 발표함을 언급했다.

한 우현과 화가이며 평론가이고 미술사가인 近園 金瑛俊(1904-1967)에 이어 정치외교학자이며 1972년 『한국회화소사』를 펴낸 東洲 李用熙(1917-1997)를 들게 된다. 미술사 관련 논문엔 본명보다 필명으로 이동주라 쓴 이용희와 더불어 같은 시대를 산 국립박물관 首將 해곡에 의해 우리 옛 그림은 그 脈과 骨格이 잡혔다. 동주에 대해 딜레탕트 dilettante 로 보는 이들도 없지 않으나 광복이후 한국회화사 연구에 礎石을 놓은 이들은 우리 회화사 연구의 동량으로 두 기둥 같아 雙璧이나 雙峰으로 지칭됨직하다.

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옛 그림을 소장하는 것을 民族愛로 생각해 적지 아니한 서화 수장가로 자신의 글에 자신의 소장품을 반영했다. 그의 부친 李甲成(1886-1981)은 말년에 친일논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기미년 만세운동에 최연소자로 참가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다. 동주는 20세기 前半 최고의 안목인 吳世昌(1864-1953)에게서 전통회화 품평과 감상법을 익혔다.

Ⅲ. 특별전 개최 - 국내의 특별전시 총괄과 대규모 회화 기획전

기획전 또는 특별전은 교과서 내지 개설서와 공통점이 있다. 일정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기에 당시 學界水準을 반영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는 백화점의 陳列과 전시기법은 일견 상통되는 면이 없지 않다. 대상을 잘 보이게 하는 일종의 연출이기에 조명이나 전시기법에 의해 모습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이 달라진다. 오늘날 조명전문가의 존재와 전시 디자인이란 용어가 이를 대변한다. 하지만 문화재나 미술품 전시는 마치 구슬을 꿰어 팔찌나 목걸이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 단순한 상품 나열과 구별된다. 특별전은 일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照明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의 端初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寶庫’인 간송미술관에서 1971년 가을 ‘謙齋 鄭敷’을 시작으로 봄, 가을 연 2회 개최한 일련의 기획전을 동치의 소장품 성격상 회화가 주류를 이룬다. 작가별, 유파별, 장르별, 화목별로 연 전시는 빠짐없이 논문을 게재하여 꾸준히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에 디딤돌 내지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첫 번째 도록의 논고를 해곡이 맡았다. 고려불화는 1970년대 초부터 이동주 개인에 의해 일본 내 고려불화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일본 나라에 위치한 大和文華館에서 1978년 개최한 ‘高麗佛畫’(1978.10.18-11.18)는 고려불화의 예술적 성취와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렸으며 이 분야 연구의 起爆濟가 되었다.

1950년 이래로 1984년까지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고구려 古墳壁畫를 필두로 조선회화 전반에

걸친 모든 전시는 해곡과 직, 간접으로 관련된다. 1960년대까지는 변변한 도록이 출간되진 않았으나 매년 기획전을 열었다. 소장품 중 한자문화권 전통사회에 있어 조형예술에서 접하는 큰 비중과 더불어, 조각과 공예에 비해 벽에 걸거나 바닥에 펼치는 등 상대적이나 전시의 용이함, 감상의 측면에서 회화 관련 전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회화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의 유형은 巨匠의 개인, 流派, 산수·화조·영모·화훼초충·사군자·풍속·초상 등 장르별 등 다양하다. 해곡이 크게 관여한 간송미술관에서 이를 계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92회로 연 기획전의 주류는 단연 회화로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와 조명에 기여한 공은 실로 지대하다.

1) 국내 전시

- 회화사연구 촉진의 牽引車

1945년 이후 1970년까지 국립박물관에서 회화를 주제로 열렸던 전시는 전술했듯 해곡이 직, 간접으로 관여했다. 1970년대 들어와 展示圖錄이 간행되는 등 본격적인 큰 규모의 기획전으로 다음 셋을 들게 된다. 5년 터울로 기획된 두 특별전의 도록 제목은 ‘韓國繪畫’로 같으니, 각기 ‘韓國名畫近5百年(1972.11.14-12.10)’과 ‘國立中央博物館所藏 未公開繪畫 特別展’(1977.4.20-5.29)이다. 그리고 ‘韓國肖像畫’(1979.10.25-11.25) 특별전이다.

‘한국명화근 5백년’은 국립박물관 외에 20여개 개인 소장처에서 선별한 조선왕조 5백년의 200여점 회화 명품을 山水·四君子·翎毛·雜科·道釋·肖像·風俗 등 장르별, 시대별로 두루 망라한 이전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前無後無한 기획전이다. 이들 중에는 후에 국보 및 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여러 점에 이른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미공개회화 특별전’은 여러 해 걸쳐 준비한 전시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장된 회화를 시대별, 유파별, 장르별로 나눠 전시했고,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이 적지 않아 회화사 연구에 기여가 컸다. 출품작은 恭愍王 전칭작으로 〈天山大獵圖〉로 지칭되기도 하는 狩獵圖 잔결과 간송미술관 소장 〈二羊〉과 같은 화면에서 비롯한 〈山羊〉 등 고려 말부터 조선말까지 시대가 올라간다.⁴⁾

수렵·산수·산수풍속·사군자·영모·魚蟹草蟲·동물·도석·瑞祥裝飾·宴禮行列·초상 등 11분야로 나눠 전시했고 도록 말미에 落款과 묵서제발도 함께 실었다. 이 전시를 통해 화원에 의해 그려진 궁중장식화와 의뢰도 성격의 그림들이 다수 출품되어 이 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4) 李源福, 「공민왕 전칭작들에 대한 고찰 - 양 그림 잔결과 수렵도를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17 (동악미술사학회, 2015.6), pp.97-125.

우리나라 옛 그림 중 초상화가 도달한 예술적 완성도와 특징을 잘 안 헤곡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 초상화가 접하는 비중이 커 이미 1963년 ‘조선초상화 특별전’(1963.8.31-9.30)이 열렸으며 국외전시에도 초상화를 반드시 포함시켰다. 1979년 개최한 대규모 ‘한국초상화’는 寄託品까지 포함해 소장품 전체를 망라했다. 전통회화 인물화 범주에서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있어 높은 예술성을 이룬 우리 초상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미술사학계에서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조시켰고, 결과는 연구논문으로 가시화를 보였다.⁵⁾

국립박물관 외 개인화랑에서 기획한 전시에도 관여해 東山房에서 연 ‘朝鮮時代 逸名繪畫—無落款 繪畫 特選展’과 ‘속·조선시대 일명회화—무낙관 특선전’등에도 관여했다.

2) 국외 전시

- 우리 문화 선양과 국제적 위상제고

1972년 국립박물관이 덕수궁에서 경복궁(현 국립민속박물관) 내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명칭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뀐다. 그 이듬해인 1973년 개최한 ‘한국미술 2천년’은 전시 명칭이 의미하듯 우리 문화재의 정수를 한 자리에 모은 대규모 기획전이다. 이 전시를 계기로 역사학계나 일반이나 李朝 대신 朝鮮이란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나아가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의 大長征으로 이어진 ‘한국미술 5천년’의 기틀이 된다. 1950-60년대 김재원에 이어 우리 문화재 해외 나들이의 중심에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에 미국과 유럽에 열린 국외전시에 유물 수송 및 현지관리관의 경험이 있던 헤곡은 관장 재직 중 대규모 국외전시를 개최된다.

일본에서 개최된 ‘한국미술 5천년’은 19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 1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그 이듬해 초에 열렸다. 1976년 초 일본 3개 도시를 순회해 큰 반응을 일으켰다. 이 전시를 근간으로 같은 규모로 동일한 명칭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미국과 유럽으로 이어진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의 國格을 높였고 문화선양에 크게 기여한다. 이때 출품된 회화는 1973년 전시 자문위원으로 동주와 헤곡이 포함되었으니 이들의 안목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5) 趙善美, 『韓國의 肖像畫』(열화당, 1983)의 다수.

IV. 혜곡의 회화사 연구 - 논고와 에세이

혜곡이 남긴 글은 국립박물관 같은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報告書나 1970년대 이후 간행된 美術全集 등 도록과 학술지에 발표한 논고 외에 박물관신문을 비롯해 독서신문과 주간조선 같은 주간지, 중요 일간지와 월간지 등 각종 잡지 등에 게재된 試論과 斷想과 수필 등 실로 풍부한 내용은 타계 후 5권 전집 간행된 『崔淳雨全集』(학고재, 1992) 출간으로 발표한 글 대강을 엿볼 수 있다.⁶⁾ 이 같이 다양한 여러 매체에 조형미술 전반에 걸친 상당량의 기고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5권의 전집은 총설, 공예·조각·건축, 회화, 문화시평, 수필·단상으로 구성되었으니 특히 제3권 회화를 통해 발표한 회화사 논문이 망라되어 있어 연구 전반에 대해 손쉽게 살필 수 있다.

생전에 간행된 첫 단행본은 『韓國美, 한국의 마음』(지식산업사, 1980)이다. 한국미의 서설에 이어 건축·도자·회화·토제와 전·금속공예·불상·석탑과 비 등 여덟 분야로 미술사 각 모든 영역이 망라된 대표적인 수필로 대상이 된 작품마다 양질의 흑백도판이 함께 실린 아름다운 이 책은 곧 매진되었다.

‘최순우의 한국미 산책’이란 부제가 있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1994),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2002) 등이 있다. 全集을 필두로 이들 모두는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했다. 전집에는 혜곡이 주고받은 적지 아니한 편지가 빠져 아쉬움으로 남는다. 補遺가 숙제로 박물관 안팎으로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와 예술가, 생활의 면모이든 학문 영역이든 후학들의 혜곡에 대한 남다른 기억, 영향 등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마침 2016년 혜곡 탄생 100주년을 맞아 원고청탁에 들어가 그 이듬해 지인들과 후배 33인이 혜곡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했다.⁷⁾ 문화재와 제자 사랑은 국립박물관의 보존과 학실 탄생과 함께 이상수, 이오희 두 사람에게 각기 토기와 철기 보존처리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 유학을 보냈고 목가구를 전공케 해 이 분야 연구의 一家로 키우기도 했다.⁸⁾

대중을 상대로 한 혜곡 스타일 글쓰기는 색깔을 달리하여 국립박물관 미술과 출신으로 博物館 학풍을 이어 도자사의 鄭良謨, 불교조각사의 姜友邦, 중앙아시아 미술의 權寧弼, 목공예의 박영규, 회

6) 「최순우 선생 글 총목록」, 『崔淳雨全集』5(學古齋, 1992), pp.425-456.

7) 혜곡최순우기념관 엮음, 김홍남 외 『그가 있었기에, 최순우를 그리면서』(진인진, 2017).

8)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범우사, 1997)와 최순우와 공저인 『韓國의 木漆家具』(경미출판사, 1981) ; 『韓國의 木家具』(삼성출판사, 1982) 수정판인 『한국 전통목가구』(한문화사, 2012) ; 마침내 한국미의 특징의 추출로 귀결된다.

화사의 崔完秀, 李源福으로 이어진다.⁹⁾

1) 자료 발굴

- 학회지 기고

우리나라 考古美術史學에 있어 선두를 점하는 관과 민의 두 학회지인 考古美術同人會의 『考古美術』과 국립중앙박물관의 『美術資料』은 공교롭게도 1960년 같은 해에 발간되었다. 이들에 게재된 대부분의 글들은 동시대 미술사 연구 전반이 그러하듯 자료발굴의 성격이 보다 강했다. 『미술자료』는 처음부터 活字本으로 간행되었으나 『고고미술』은 鐵筆로 굵어 프린트했고 도판은 인화한 사진을 일일이 오려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기인된 것으로 미술사 여타의 분야도 같은 양상이니 대체로 길지 않는 글들이다.¹⁰⁾

해곡에게 있어 회화사 분야에 있어 흐름을 다룬 개설적인 글을 포함해도 長文의 논고는 10편 내외에 불과하다. 1971년 가을 간송미술관이 일반에게 처음 공개하며 연 기획전에 기고한 「점재 정선」은 眞景山水를 창출해 우리 옛 그림의 독자성과 높은 위상의 대명사인 정선에 관한 이른 논문이다. 이는 정선과 진경산수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했으니 1976년 독일에서 정선으로 兪俊英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崔完秀에 의해 괄목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진다.

1966년 덕수궁미술관 소장이던 서화들이 1969년 박물관으로 이관된데 이 중에 속한 김홍도의 아들 金良驥(1792 경-1844 이진)가 부친의 필적을 모아 성첩한 『檀園遺墨帖』을 통해 김홍도의 生年이 1745년임을 밝혔고, 김홍도의 생애와 풍속화, 신윤복의 풍속화를 조명한 주옥같은 논문 등이 있다.

2) 斷想과 隨筆

하지만 때론 한 편의 에세이가 논문 이상의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好事家の美文과는 거리가 있다. 긴 논고도 결론은 몇 줄로 요약되는바 짧은 글이나 이 같은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시와 소설에서 문학성의 우월을 논하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9) 鄭良謨, 『너그러움과 해학』(학고재, 1998); 姜友邦, 『美的 순례』 이어 『강우방 예술론, 美術과 歷史 사이에서』(悅話堂, 1999) 등 다수; 權寧弼, 『敦煌 바람』(영남대 출판부, 1986)과 『왕십리바람이 실크로드로 분다』(시월, 2006); 이원복,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효형, 1997)와 『홀로 나귀타고 미술 숲을 거닐다』(이가서, 2008).

10) 『藝術總覽』, 韓國美術史論著解題篇(藝術院, 1983), pp.181-84, 1981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에 의한 것이기에 1981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관계학자가 망라되었는데 10편 이상의 글을 발표한 학자는 최순우를 포함해 6인에 불과하다.

그림에 관한 한 회화사에 있어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을 비롯해 회화사의 축적이 뚜렷한 이들과 그들의 대표작이나 基準作을 박물관 외에 개인 소장품, 그리고 국의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등 조선왕조 전시대에 걸쳐 적지 아니한 작가와 작품을 발굴한 점이 돋보인다. 후일 후학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터전을 마련했다.

3) 회화사의 골격

- 총론과 개설

1970년 이후 간행된 미술전집류 회화 편에 쓴 해곡의 논고는 우리 옛 그림의 대세와 흐름과 특징을 간단명료하게 밝힌, 개설적인 성격이 짙은 통사적인 글이다. 시대에 따른 화풍의 흐름과 변천에 대한 대세를 一目瞭然하게 전개한다. 이는 결코 짧지 아니한 오래시간 동안 박물관 내의 많은 명품들을 접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비록 도록은 간행되지 않았지만 1960년 전후부터 이어진 고구려 고분벽화, 호랑이 등 때 동물, 풍속화와 초상화 등 각종 특별전을 연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개설적인 글로는 일찍 1955년에 「우리나라 미술사 개설」을 2회에 걸쳐 『새벽』에 연재했고, 1957년 『경기도지』에 「한국미술사」에선 현대미술까지 포함해서 서술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한국고미술』의 「회화」(1974)와 국사편찬회서 간행한 『한국사』11(1974)에 「회화」 편(1974)을 서술했다. 자신이 직접 본 무수한 그림들과 깊은 생각을 거쳐 한국미술과 회화의 흐름과 대세를 엮은 논고는 1970년대부터 國內外 간행된 적지 아니한 저술에 「한국 미술의 흐름」, 「한국회화의 흐름」이나 「조선왕조의 회화」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한국 초상예술사 개관」은 『韓國名人肖像大鑑』(탐구당, 1972)에 실렸으니 이들은 교과사적 의미를 지니는 글로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1979년 초상화 특별전이 가능했다.

4) 다양한 분야 두루 망라

- 전통회화 전 장르, 불화와 민화까지

해곡의 지휘 아래 사립박물관을 비롯해 개인소장 서화뿐 아니라 전국 사찰에 소장된 불화에 대한 조사를 1960년대 말부터 시작했다. 미술과장 시절부터 몇 안 되는 학예실 인원이거나 강진 등 陶窯址 발굴과 함께, 「全國民間所藏의 韓國一般繪畫調査」와 「全國寺刹所在의 佛教繪畫調査」를 1969년부터 실시했다. 이 사업은 최순우 주관에 鄭良護를 반장으로 미술과에서 추진했다. 전국의 개인과 사찰이 소장한 회화에 대해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실시했다

미술사에 연구에 있어 작품에 대한 면밀한 記述은 연구의 기초 확립의 의미로 그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비록 서화조사는 보고서가 출간되진 않았지만 조사한 작품마다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기술과 세부사진이 부착된 상당량의 조사카트가 전한다.¹¹⁾ 개관 이전 간송미술관과 해남 尹斗緒(1668-1715) 고택인 綠雨堂의 회화 등도 두루 포함 되었다. 개인소장품 중에는 그 동안 소장처가 바뀌거나, 소재지 불명인 것들도 적지 않다.

사찰종합조사의 첫 가지적인 성과는 1970 년 『韓國의 佛敎繪畵 -松廣寺-』로 간행되었다.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 3 책으로 불교미술전시로 명칭이 바뀌긴 했으나 지속된다. 해국 사후 『美術史學誌』란 명칭의 부제로 1 집이 ‘麗川 興國寺의 佛敎美術’(1993), 2 집은 ‘선암사(1997), 3 집은 ‘禪雲寺 · 來蘇寺 · 開巖寺의 佛敎美術’(2000)이란 부제로 간행되었다. 이어 『천은사의 불교미술』(2009), 『화엄사의 불교미술』(2010) 등으로 불화만이 아닌 사찰의 문화재를 함께 조사하는 불교미술 연구조사 보고서 사업으로 4 책이 출간되는 등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이다.

民藝라는 용어는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우리나라에선 민예를 民俗工藝 또는 民衆藝術의 준말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곡의 남다른 애착은 해방 30 주년을 맞아 ‘韓國民藝美術大展’(1975.6.23-7.23)을 개최한다. 5 백점이 넘는 출품점수의 대규모 전시로 여기 출품된 民畵는 화면 내 관지가 없고 화가명도 없는 匿名 때문에 흔히 민화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宮中裝飾畵는 단 한 점도 없고 일찍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극찬한 순수 민화의 대표적인 걸작들이 업선 되었다. 국립박물관에서 민화를 최초로 전시실에 들여놓은 역사작, 紀念碑적인 전시라 하겠다.

V. 현대미술에 기여

- 평론, 현대 화단과 소통

1950 년대와 1960 년대 초 문화재 국외 전시에 호송관과 전시담당이자 현지관리관의 공적인 업무로 적지 않은 기간 국외에 머문 해곡은 유럽 각국과 미국의 이름 난 박물관에서 명품과 걸작의 실사를 통해 서구의 전통미술만이 아닌 현대미술에 대한 남다른 각별한 관심으로 그가 늘 그러했듯 실물을 앞에 두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한 진솔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박한 이해에 도달하기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미술 및 개인전에 관한 글을 전시도록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역사학계와 한학자, 서단과 화단의 명사들과 한국동란 피난 중 부산에서 현대화가 전시를 개최한 해곡은 건축가 金壽根(1931-1986) 도자작가 尹光照(1946-) · 盧慶祚(1951-)등 제자, 金基泮

11) 바로 이 같은 일련의 조사에 그 후 발굴자료 등을 첨부해 낸 최근의 방대한 저술은 처음부터 이 조사에 참여한 鄭良謨의 『朝鮮時代畵家總攬』(시공사, 2018)임.

(1913-2001) · 張旭鎭(1917-1990) · 李成子(1918-2009) · 千境子(1924-2015) · 卞鍾夏(1926-2000) · 劉康烈(1920-1976) · 權玉淵(1923-2011) 등 화가들과 가까운 해곡은 이들 개인전 도록에 글을 쓰는 등 평론가 역할을 했다.

“실로 한국의 회화는 중국 그림에서나 일본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야릇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기교를 넘어서는 방심의 아름다움, 때로는 조야粗野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산疏散한 감각은 한국 회화의 좋은 작품 위에 항상 소탈한 아름다움으로 곁들여져 정취를 돋우어 준다고나 할까... 역대의 작가 계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소방疏放과 야일, 생략과 해학미諧謔美 등 독자적인 감각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 계보는 장식적裝飾的으로 발달한 일본 그림이나 권위權威에 찬 중국 그림과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며...”

최순우, '우리의 미술',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학고재, 1994), 18쪽

VI. 맺음말

- 한국회화의 위상과 특징

이상에서 走馬看山, 개략적으로 살핀 최순우의 우리 옛 그림 연구서는 그가 기획한 전시와 자료조사 그리고 발표한 논고와 그의 독자적인 영역인 문화재 관련 수필 등을 통해 확인된다. 도자공예와 더불어 일찍 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고, 발표한 전체 글에서 접하는 비중 또한 크다.

첫째, 현존하는 조선시대 그림 전체에 대한 基本資料의 집성에 각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일련의 사업들을 들게 된다. 자료집성을 절감한 해곡은 '한국회화사연구의 現況속에서 가장 緊要한 基礎作業'으로 두 가지 사업을 각기 5년씩 연차적으로 기획했다. 고유섭에 이어 그의 제자 진홍섭이 이화대학교 정년퇴임 후 9 책에 이르는 방대한 『韓國美術史資料集成』과 비교가 된다. 수많은 漢籍을 열람해서 찾은 미술사의 문헌자료인데 비해 해곡은 실물 작품의 집성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회화사적 비중이 큰 화가들의 대표작과 契會圖 등 발굴을 들게 된다. 이들은 史料解題의 성격이 강하다. 해곡이 발굴한 적지 아니한 작품 중에서 먼저 조선 중기화풍을 연 金禕(1524-1593)와 李慶胤(1545-1611)의 대표이자 기준이 되는 작품들로 비정된다. 조선시대 회화의 조사와 발굴을 바탕으로 짧은 규모의 글이나 작가별 畫風의 특징을 간파해 서술했다. 전자는 현 리움 소장으로 보물 783 호로 지정된 <童子牽驢圖>이며, 현재 후자는 호림박물관 소장인 20 점으로 구성된 화첩으로 이 중 9 점에 화면에 崔筮(1539-1612)이 1598 과 1599 년에 직접 쓴 跋文과 讚詩가 있다.

이밖에 화적이 드문 李楨(1578-1607)의 실경과 정형 두 산수화첩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東垣 李洪根(1900-1980) 구장인 조선 후기 문인화가 之又齋 鄭遂榮(1743-1831)의 『海山帖』등 한둘이 아니다. 특히 조선 말 북산 金秀哲과 石窓 洪世燮(1832-1884), 少南 李喜秀(1836-1909)의 발국은 이른바 동주는 조선말 새로운 감각으로, 안휘준은 異色畫風, 유흥준은 新感覺派로 명명한 전통회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시사점이 큰 화가들이다. 이들 작가에 대해선 해곡의 권유로 박물관 내 후학에 의해 본격적인 논고로 발표되었다.¹²⁾ 작품발굴에 대한 시선은 국외까지 이어져 미국 필라델피아 박물관 소장 李巖(1507-1566)의 〈狗子圖〉, 영국 대영박물관의 초상화 草本과 불화도 있다.

셋째, 해곡은 우리나라 회화 전반에 대해 通時代的으로 살피되 일반회화 외 佛畫와 民畫 등 전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나아가 현대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장르를 넘나들었으니 한국동관으로 부산 피난 중에 ‘제 1 회 현대작가 초대전’(1953.5.1-5.31)을, 그 이듬해 ‘한국현대회화 특별전’(1954.1.1-1.31) 열기도 했다.

불화 등을 일반회화와 함께 더불어 살필 때 우리 옛 그림의 眞面이 들어난다고 보았다. 고대 한국 회화 발달의 요람이 초기 불교회화 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간과해 佛畫와 民藝를 民衆美術로 정의하며 민화를 아우른다. 고대회화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新羅寫經의 裝飾畫,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화가들 대부분을 망라하며 시대별, 화가별 화풍의 특징을 추출했다.

넷째, 공예분야의 연구와 더불어 도자가 문양의 繪畫性을 일찍이 간과했다. 그림의 전래가 드문 고려와 조선 초기에 있어 이들을 공예 문양을 회화의 범주에 넣어 補完資料로 원용한 점을 들게 된다.¹³⁾

다섯째,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사립박물관과 수많은 개인 소장품 등, 매 작품마다 오랜 세월 장기간에 보고 또 본 후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과 작가를 간결하고 길지 아니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한다. 일견 호흡이 짧아 보이는 에세이이나 그 안에 平易하며 아름다운 문체로 담긴 내용은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곧바로 미감의 핵심과 본질에 도달하게 한다. 조형예술 전반에의 따듯하며 예리한 시선으로 찾은 공통분모는 같은 한자문화권의 同質性을 먼저 보니 편향되거나 편협한 시각이 아니다. 風土와 美感의 차이에서 벗어난 미적 差別性까지 살폈다. 결국 우리 회화의 獨自性과 특징 규명으로 진전된다.

12) 李泰浩, 「洪世燮의 生涯와 作品」, 『考古美術』 146-147(1980.8), pp.55-6 ; 이태호 「之又齋 鄭遂榮의 繪畫」, 『美術資料』34(국립중앙박물관,1984.6) ; 이원복, 「李楨의 두 傳稱畫帖에 대한 試考」, - 關西名區帖과 許文正公記 李楨畫帖」, 『미술자료』34-35(1984.6-12),pp.46-60, pp.43-53 ; 이원복, 「辛亥生甲會之圖」, 『미술자료』39(1987.6), pp.68-73 ; 이원복, 「少南 李喜秀의 繪畫-山水屏과 墨蘭竹屏을 中心으로」, 『미술자료』54(1994.12), pp.64-91.

13) 崔淳雨, 「高麗陶磁의 文樣」, 『世界陶磁全集』18 高麗(日本 小學館,1978),pp.251-265; 최순우, 「粉靑沙器 抽象圖文」, 『空間』7(1969.7) 등.

주제어(Key Words)

최순우, 박물관인, 문화예술행정가, 대 미술사학자, 민화, 불화, 현대화 한국미 특징
Choi Sunu, Museum Man, Culture and Art Administrator, great Art Historian,
Buddhist painting, Folk painting, Modern painting, unique Korean styles

〈참고문헌〉

- 최순우, 『崔淳雨全集』5(學古齋, 1992),
김명숙, 『최순우의 실증주의적 한국미술사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김정아, 『최순우의 ‘한국미’ 서술에 나타난 어휘 분석 : - 메타비평의 시각에 입각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이충렬,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김영사, 2012)
김홍남 외, 『그가 있었기에, 최순우를 그리면서』(진인진, 2017).

최순우 선생의 회화사 연구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4대 관장을 역임한 崔淳雨(1916-1984)는 국립박물관에 40년 넘게 봉직한 博物館人으로 문화예술 행정가이자, 큰 美術史學者이다. 그의 繪畫史 연구업적은 ‘한국미술 5천년전’ 국외전시, 1972년과 1977년 개최한 ‘한국회화 5백년전’과 ‘국립박물관소장비장회화특별전’ 등 수많은 전시기획, 資料發掘調査, 발표한 논고, 그 나뉠의 독자적으로 개척한 문화재관련 수필 등을 통해 확인된다. 회화사는 陶磁史와 함께 그의 연구에서 비중이 크다.

첫째, 현존하는 조선시대 그림 전체에 대한 聚畧에 각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일련의 사업들을 들게 된다. 연구에서 가장 긴요한 기초 작업으로 개인소장 서화와 寺刹 내 佛畫照畧 두 사업을 각기 5년씩 연차적으로 기획했다.

둘째, 조선시대 회화사적 비중이 큰 조선중기 화풍을 연 金禔(1524-1593)와 李慶胤(1545-1611)의 작품발굴이 주목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인 보물 제 783호 <童子牽驢圖>와 호림박물관 소장 20점으로 된 화첩 내 9점에 화가와 동시대를 산 선배 崔筮(1539-1612)이 1598과 1599년에 직접 쓴 跋文과 讚詩가 있다. 화적이 드문 李楨(1578-1607)의 실경과 관념의 두 산수화첩,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문인화가 鄭遂榮(1743-1831)이 금강산을 그린 『海山帖』 등 한둘이 아니다.

조선 말 김수철과 洪世燮(1832-1884), 李喜秀(1836-1909)의 발굴은 새로운 감각으로 이異色畵風으로 지칭되는 전통회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시사점이 큰 화가들이다. 이들 작가에 대해선 박물관 내 李泰浩, 李源福 등 후학에 의해 본격적인 논고로 발표되었다. 작품발굴은 국외까지 이어져 미국 필라델피아 박물관 소장 李巖(1507-1566) 계열의 <狗子圖>, 영국 대영박물관의 肖像畵 草本과 불화도 있다.

셋째, 그는 우리나라 회화 전반에 대해 통시대적으로 살피되 일반회화 외에 불화와 民畵, 현대회화 평론까지 참여했습니다. 한국동란으로 부산 피난 중에 ‘제 1회 현대작가 초대전’(1953.5.1-5.31)과 ‘한국현대회화 특별전’(1954.1.1-1.31)을 열기도 했다. 이들 그림을 함께 살필 때 우리 옛 그림의 眞面目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고대 한국회화 발달의 요람이 초기 불교회화에 바탕을 두었고 고대회화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화가를 망라해 시대별, 화가별 화풍의 특징을 추출했다.

넷째, 공예분야의 연구와 더불어 도자가 문양의 繪畫性을 일찍이 간파했다. 그림의 전래가 드문

고려와 조선 초기에 있어 이들을 工藝文樣을 회화사의 補完資料로 인용한 점을 들게 된다.

다섯째,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사립박물관과 수많은 개인 소장품 등, 매 작품마다 오랜 세월 장기간에 보고 또 본 후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과 작가를 간결하고 길지 아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했다. 일견 짧은 에세이이나 그 안에 쉽고 아름다운 文體로 서술하여 읽는 이에게 美感의 본질에 도달케 한다.

우리 조형예술 전반에의 따듯하며 예리한 시선으로 찾은 공통분모는 같은 한자문화권의 동질성을 전제로 살펴 편협하지 않은 國際的 시각이 아니다. 風土와 미감의 차이에서 빚어진 미적 差別性까지 살폈다. 결국 우리 회화의 독자성과 특징 나아가 韓國美의 특징의 추출로 귀결된다.

A Historical Review on Art History of Choi Sunu

Lee Won Bok

Former Chief Curator Manager National Museum of Korea

As a fourth Director of National Museum of Korea, Choi Sunu(崔淳雨,1916-1984) had been dedicated himself to the museum over 40 years and now known as a diligent Museum Man, Culture and Art Administrator and great Art Historian. His achievements on Art History are remarkable from international exhibition 'Korean Arts in 5000 years', domestic renowned exhibitions such as 'Masterpieces of 500 Years of Korean Painting', 'Korean Paintings selected from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 to be shown for the first time to the public-' in 1972 and 1977. Apart from those results, his personal researches on art histories, documentations and research essays show his great interest on museum and its material cultures. Art History is one of his main research areas as much as history of Celadon.

First of all, Director Choi did gather all exist paintings of Joseon and had been organised several works for these paintings. As a pivotal base works for his research, personal collections of Joseon Paintings and paintings that owned by temples were thoroughly studied in five years terms.

Second, Choi focused on painters Kim Si(金視,1524-1593) and Lee Kyeong Yoon(李慶胤,1545-1611) who both are crucial to understand intermediate term of Joseon Period. To a certain extent, Director Choi also uncovered Choi Rip(崔笠,1539-1612) who directly wrote poet on painting in Horim Museum and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nd Lee Jeong(李楨,1578-1607) whose writings are rarely found and Jeong Soo Young(鄭遂榮,1743-1831) who draw Mount. Geumgang. Painters such as Kim Soo Chul, Hong Se Sup(洪世燮,1832-1884), and Lee Hee Su(李喜秀,1836-1909) whose works were mainly found in late Joseon are all famous for unique style which suggest the provision of traditional paintings. Those painters are all highlighted by younger researchers Lee Tae Ho, Lee Won Bok from National Museums.

Third, Choi rigorously overviews not only traditional paintings of Korea but also Buddhist, Folk, and Modern paintings. 'The First Invitation Exhibition of Korean Modern

Paintings(1953.5.1-5.31)’ and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Modern Arts(1954.1.1-1.31)’ had been organised in Busan even during the Korean War.

Fourth, with the research on crafts, Choi comprehended the artistic perspectives of Celadon. As of its uniqueness of paintings in Goryeo and Joseon, it is hard to be descended for long time and so Choi tried to use the craft arts to understand the paintings.

Finally, Choi’s summaries on paintings from national, private museums and even from personal collections are simply made based on thorough researches on them that helps readers comprehend real value of paintings. His researches on Korean paintings are well shown its traditionality and distinctiveness of original but unique Korean styles, not just like other Asian paintings.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15일 | 논문심사일 2018년 11월 16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0일